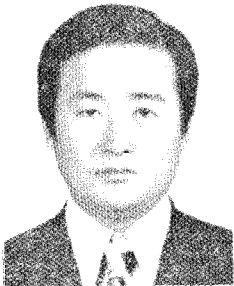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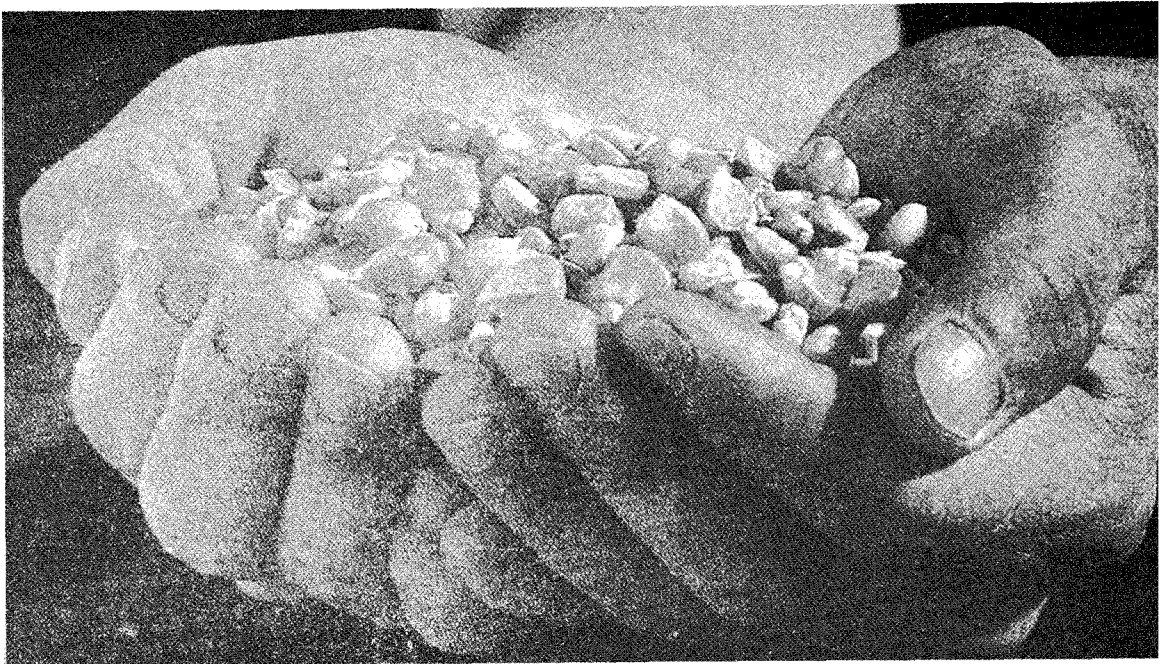


최근 미국의 옥수수 가격 대폭 앙등 배경과 전망

C&F M/T당 115~118\$→170\$대 (4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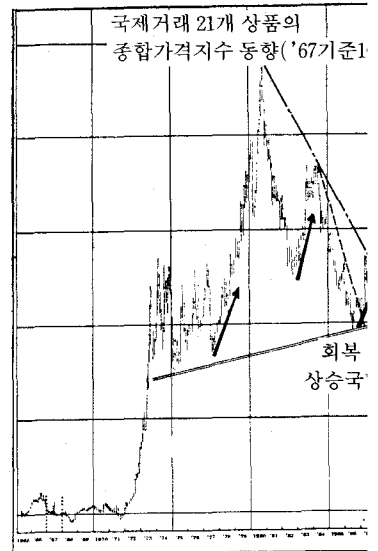
김 동 수
옥성씨비스상사 대표

〈국제 원자재 동향〉

옥수수·대두 등의 곡물과 금·은 등의 귀금속, 원목, 목재 등 선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거래 21개 상품의 1967년의 종합지가지수를 100으로 기준할 때.

국제거래 21개 상품의 종합가격지수동향(65년~88년, 23년간)은 표에서와 같이 83년~84년부터 시작된 하락기기는 86년 바닥으로 반전되어 상승기미로 변화되고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73년 이후 77년~78년, 82년



~83년에 상승추이를 보이는 것과 37년~88년의 상승추이를 보이는 것은 매우 흡사함을 볼 수 있음.

따라서 최근 옥수수 가격 등 국제 곡물가격 이외의 국제거래 주요 상품의 가격은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것을 '87하반기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사항임.

<미산 옥수수 연도별 기말재고율 동향>

옥수수 가격을 예상하는 척도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재고율의 증·감 역시 옥수수 가격 예상의 주요 지표 를 볼 수 있을 것임.

미국산 옥수수의 연도별 수요량에서 본 기말재고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86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즉, 연도별 기말재고 비율이 높을 수록 가격은 하락하고

(특히 '86년 재고율은 기록적으로 가격은 '86년 당시 C&F당 약 80\$ 대).

기말재고 비율이 낮을 수록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기본원리에 따라 '74년도 세계적 곡물파동 그 당시 미국의 옥수수 재고율은 10% 내외에서 발생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88년 말 기말재고 감소예상율이 38%에서 최근의 가뭄에 의한 흉작 예상으로 기말재고율이 20% 수준까지 내려갈 경우 심각한 국면을 맞이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건조기후와 옥수수 가격예측>

미국의 옥수수 주산단지(일명, 콘·벨트)에 50년 이후 최악의 가뭄으로 극심한 흉작이 예상되어 연일

국제 옥수수 시세는 상승되고 있다.

또한 극심한 가뭄은 옥수수의 성장 발육 억제는 물론 옥수수의 내륙 최상 수송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미시시피강의 수위를 저하시켜 옥수수 수송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지선의 운항마저도 어렵게 하고있어 옥수수 가격의 상승요인은 물론 구매할 옥수수의 원활한 수급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악재외에도 전 세계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국들은 앞다투어 구매코자 하고 있어 수요가 왕성할 뿐 아니라 대량 구매국인 소련의 미산옥수수 구매설과 투기꾼의 참여로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빠른 시일내 충분한 강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히 파종 성장중인 옥수수가 가뭄으로 회복 불가능 지역도 있고, 수확이 대폭 감소할 것임으로 1차 예측가격은 C&F 180\$대이상 양등한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는가 하면, 제반통계를 기초로 한 관측통들은 1983년대 시세인 155~160\$ 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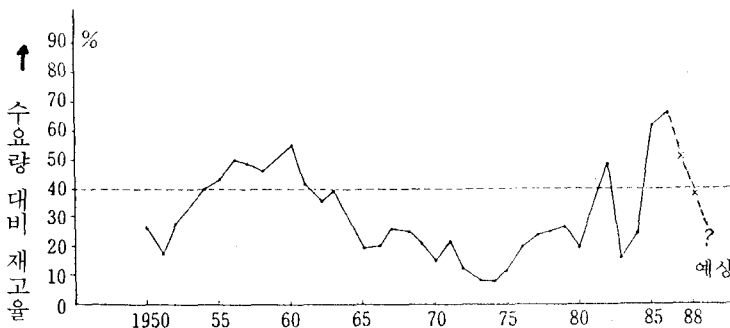
문제는 저곡가 시대에서 그간 대량 구매자로서 한국의 비교적 고자세 입장에서 고곡가 시대에 한국이 저자세 구매자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배합 사료가격 인상 예상>

대부분의 국내 배합 사료업체는 저가의 곡물을 기 확보 하였던 바 업체에 따라서는 '89년 1~2월까지 저

단위 : 100만BU

구분	년도	86/87USDA	87/88USDA	87/88 예상	88/89 예상
공 급 계		12,291	11,948	11,948	11,064
수 요 계 (A)		7,410	7,836	7,925	8,004
기 말 재 고 (B)		4,882	4,112	4,023	3,060
재 고 율 (%) (B/A)		(65.9)	(52.5)	(50.8)	(38.2)



국제사료곡물 시세동향

종 별	인상율(추정)	배합비평균	원가에 미치는 영향
곡 류	50%	60%	30%
박 류	30%	10%	3%
강 피류	15%	10%	1.5%
기 타	10%	10%	1%
계		90%	35.5%

가 곡물을 확보하였는가 하면 '88년 10월~11월까지 확보한 업체도 있어 저가곡물 사용기간은 '88년 말까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88년 말경에는 고가의 곡물을 사용하게 됨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면, 이상과 같이 인상율을 간단히 원재료비 원가 압박 상승요인으로 30~40%가 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사료별 인상율은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히 원가 압박 상승요인 외에도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배합사료에는 원료별로 상대적 사료가치가 상이하여 정확한 판단은 현재로서 시기상조일 것이며, 특히 국내 축산 및 사료업체가 공동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사료업계 스스로의 검토도 이루어 질 경우 단계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인상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 곡물가격의 양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과 금차 국제 곡물가격 양등은 기후에 의한 천재지변이라는 사실일 것으로 이에 대한 축산, 사료업계의 공동적 대처방안에 의한 공존방법을 빨리 모색하여 충격을 최대한 감소 시켜야 할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요즈음 미국의 50년 만의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은 대폭 흉작이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료곡물 가격 양등이 눈앞에 닥쳐 한국의 축산·사료업계를 위기로 휘몰아치고 있다.

「계곡과 산」「가뭄과 홍수」「풍작과 가격하락」「호황과 불황」등 극대극의 상황을 우리는 늘 보고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풍요로울 때에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특정 물가의 가격이 하락하면 또다시 오른다는 원칙을 수 없이 듣고 경험했다.

이제 국제거래 관계에 있어 「비교우위론」이 농업에서 만큼은 무척이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제, 88년 4/4분기 중에 미국: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주위에서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요 공급 원칙을 철저히 느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와서

-정부 또는 수급조절단체의 곡물 확보정책에 대한 비난.

-언제는 곡물판매에 수출 장려까지 지급하다 이제 와서는 장려지급을 재검토 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난.

-미국이 팔아 달라고 할 때 장구매계약을 왜 실행하지 못했는지는 아쉬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해외에 개발투자를 하여 옥수수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비난과 아쉬움.

-곡물가격이 저렴할 때 안정기준 가격을 채택하여 차액을 적립하여

고가시대에 대비하는 지혜의 부족 등을 이제와서 재론해 보아야 앞으로 닥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닥칠 고곡가 시대의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결이 지난하리라 본

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인 축산업자와 사료공장의 단합없이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수요공급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안밖에 좋은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1) 기업규모의 농장과 전업규모의 농장에서 가축 사육수를 지금보다 20%정도 감축하는 방안.

2) 부업규모 농장은 최대한 농가 부산물과 자급사료를 생산하여 사료비를 절감시키고,

3) 배합사료공장을 현재보다 판매량이 20~30% 감소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도산되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판매량만 감소했지 외형은 고곡가 시대이므로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될 경우 가축사육 수 감소→축산물 가격상승→사료가격 상승을 상쇄하여 축산농가는 도산되지 않을 것이며,

※사료판매량 감소→사료가격 인상으로 매출액 증가→판매 감소에 대한 외형 감소는 사료가격 인상으로 외형 증가 상쇄로 사료공장 역시 도산되지 않을 것임.

양축농가와 사료공장이 단합하여 사육감소와 사료판매량 감소를 진행시켜 양축이 공존하면서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축산물 수입억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래야만 우리는 국내 축산업을 영원히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상대가 도산돼야 내가 잘 살수 있다는 논리의 실증이 가끔씩 이땅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텐데... 상대도 살고 나도 살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양기**

(최근 주요원료 구매결과)

단위 : C&F\$/MT

구매일	품명	원산지	구매자	공급자	수량	단가	선적	비고
6/3	옥수수	PRC	개별	쌍용	10,000	105 ⁵⁰	BY9	과채
"	"	"	축협	대우	10,000	98 ⁹⁰	6/15~7/5	"
6/6	"	"	개별	카길	5,000	99 ²⁵	BY 6	"
"	"	"	"	홍콩직거래	10,000	99 ⁹⁰	BY 8/30	"
"	"	"	"	"	10,000	99 ⁹⁰	BY 9/30	"
"	"	"	"	삼미	10,000	98 ⁷⁵	BY 8	"
"	"	"	"	선경	10,000	100 ⁷⁰	BY 7/8	"
6/15	"	"	"	삼성	10,000	105 ⁵⁰	BY 8	"
6/18	"	"	KFA	"	10,000	107 ⁵⁰	9/25~10/13	"
"	"	"	"	쌍용	10,000	110 ⁹⁰	"	"
"	"	"	"	삼성	10,000	108 ⁵⁰	10/9~10/28	"
"	"	"	"	선경	10,000	110 ⁹⁰	10/9~10/28	"
6	"	"	개별	우화	10,000	114 ⁹⁰	BY 9	"
6/24	"	"	축협	현대	10,000	122 ⁷⁰	9/13~9/27	"
"	"	"	"	"	10,000	122 ⁷⁰	9/28~10/12	"
6/23	"	"	사협	쌍용	20,000	122 ⁸⁰	BY 11	"
"	"	"	"	선경	10,000	122 ⁷⁰	BY 10	"
5/14	대두박	PRC	사협	현대	10,000	230 ³⁰	6/10~6/30	
"	"	"	"	"	10,000	232 ³⁰	6/25~7/25	
"	"	"	"	삼미	5,000	232 ⁹⁰	6/23~7/23	
"	"	"	"	"	5,000	210 ⁹⁰	BY 6.7	
"	"	"	"	해태	5,000	232 ⁹⁰	6/25~7/15	
6/3	"	"	"	대우	10,000	238 ⁸⁰	7/25~8/13	
"	"	"	"	"	10,000	238 ⁸⁰	"	
6/11	"	"	축협	현대	5,000	252 ⁹⁰	7/1~7/20	
5.	채종박	PRC	개별	쌍용	6,000	115 ⁹⁰	BY 8월	
6.	"	"	"	현대	5,000	114 ⁵⁰	7/25~8/25	
6.	"	캐나다	"	카길	3,000	260 ⁹⁰	BY 7월	
6.21	면실박	PRC	사구회	대우	5,000	135 ⁹⁰	BY 8월	
"	"	"	개별	우화	5,000	136 ⁹⁰	"	